



2020년 사순절

주의 십자가가 사랑하리...

2월 26일(수) ~ 4월 11일(토)

가정예배 주간묵상집

- 여섯째주 -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2/26 재의 수요일	27 2일	28 3일	29 4일
3/1 사순절 1주	2 5일	3 6일	4 7일	5 8일	6 9일	7 10일
8 사순절 2주	9 11일	10 12일	11 13일	12 14일	13 15일	14 16일
15 사순절 3주	16 17일	17 18일	18 19일	19 20일	20 21일	21 22일
22 사순절 4주	23 23일	24 24일	25 25일	26 26일	27 27일	28 28일
29 사순절 5주	30 29일차	31 30일차	4/1 31일차	2 32일차	3 33일차	4 34일차
5 종려 주일	6 35일	7 36일	8 37일	9 38일	10 39일	11 40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6~10)						
12 부활 주일	=> 총동원주일					

막 12:44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는 단계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예수님의 수난의 길로 문을 열어주는 이야기입니다.

두 렵돈을 드렸던 과부의 헌금이 어느 부자의 헌금보다도 가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의 두 렵돈만 가지고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에서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십니다. 과부의 두 렵돈은 새로운 성전의 기초를 마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과부의 헌금을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까? 이 과부는 비참한 상태에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바쳤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들은 넘치는 가운데 얼마씩 헌금을 냈기 때문입니다.

혈벗고 굶주리며 마지막 한 끼니에 언제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항상 생명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렵돈을 바친 것은 그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과부는 바로 ‘자기의 생존’, ‘자기의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모습은 당신의 생명을 바치시는 예수님을 조금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심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것에 관한 깊은 묵상을 통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의 힘을 느껴봅시다.

막 14:36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의 공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장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이 있고, 다른 편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곳을 오가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도 말을 건네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며 그분께 정신을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그렇게 하였으나,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고 있었고”, “눈이 무겁게 내리 감겨 있었으며”, “그분께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잠에 빠진 이상 정신이 살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무거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달리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분의 정신은 살아있었고,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강했습니다. 땅에 엎디어진 예수님의 몸 안에서 ‘타락’과 ‘기도’, ‘육’과 ‘영’의 긴장은 놀라울 정도로 심하였습니다. 그분은 슬픔, 고뇌, 죄, 수난의 시간 때문에 땅 위로 엎드린 이 육체를 기도를 통해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시간은 예수가 곧 말씀하실 ‘마실 잔의 시간’이었습니다.

싸움은 예수님 자신 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육체의 무게와 아버지께 돌아가려는 정신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싸움이 힘들어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돌아온 예수님은 “이제 자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쉬라는 말은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원수의 유혹과 육체의 무게가 극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삶과 피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준비를 마치신 것입니다.

막 15:5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지금 이리저리로 끌려 다니시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에 관하여 설명하시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존재하기로 결정한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고소하는 말들에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예수님은 권리와 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실 재판받아야 할 사람과 재판하는 사람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빌라도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규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하지만 그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라는 사람이 풀려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죄인은 풀려나고 의인은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거짓과 악은 승리하였고, 진리는 너무나 가볍게 십자가 나무위에 달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승리하는 세상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진리가 승리하는 세상이라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거짓과 악, 그로 인한 죽음의 그림자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거짓과 악의 희생자가 되시고, 그 결과인 죽음까지 맛보시기 위하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고통을 바라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참여하시는 분이며,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며,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막 15:34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
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이들. 우리들이 만약에 골고다에 있었다면, 우리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속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어 가시는 예수님은 모든 이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단지 시몬이라는 사람만이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함께 갔을 뿐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땅히 할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오해받았을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도 분리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사람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일은 누가 함께 할 수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비록 외로울 지라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기분일지라도, 우리들의 몸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는 일, 이 일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막 15:47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의 모습을 본 한 백부장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까? 하지만 백부장은 그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 당신의 아들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서 바라보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묻히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죽음, 장사와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강도들과 함께 매장되었다라면, 튼튼한 바위 속이 아닌 다른 곳에 버려졌더라면, 예수님의 모습은 잊혀져 버렸을 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 빈무덤의 기억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의 기억을 통하여 현존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여인들이 본 것을 전해 듣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을 통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현존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내 마음 속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깊이 간직되어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막 16:6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
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새벽에 빛이 희미하게 떠오를 즈음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인들은 아직 어두운 밤에, 떠오르는 태양을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들 앞에 마치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솟아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시편 19:4-6)

예수님은 이제 온 세상이 피할 수 없도록 비추시는 빛이 되신 것입니다.

여인들 앞에서 부활하신 분, 그분은 그 여인들이 알았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지켜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바로 그 분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분은 이제는 어느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더 이상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라는 의미는 그 여인들에게 지금까지 공간으로 여겨오던 것을 모두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공간은 그 여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동안 지나왔던 모든 장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에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공간도 시간도 이제는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곳에서, 저곳에서, 광활한 우주 전체에서, 조그만 우리 몸속에서, 과거에서, 현재에서, 그리고 미래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느껴봅시다.

주간묵상집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1. 가정예배

- ①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합니다.
- ②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
- ③ 묵상한 내용을 서로 나눔
- ④ 묵상 글을 함께 읽습니다.
- ⑤ 묵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심기도합니다.

2. 하가다

- ① 반드시 소리내어 합니다.
- ② 매일 반복합니다.
- ③ 집중해서 합니다.
- ④ 믿음으로 합니다.
- ⑤ 단순하게 합니다. (여러 구절보다는 한 구절을 3천 번 읊조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주의 하가다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 37:3)

3. 중보기도

- ① 회개: 모세가 백성들의 죄악을 품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먼저 우리 자신과 나라의 죄악을 품고 회개 기도합니다.
- ② 교회의 평강과 영적 회복,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③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합니다.
- ④ 확진자와 그 가족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온 나라가 지혜롭게 대처하여 코로나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옵소서.
- 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방역당국, 의료진,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있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 ⑥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가 무너지게 하시고, 거짓 복음에 메여있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 주옵소서.
- ⑦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깨어 일어나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소서.